

auribrief.

No. 54

한국 도시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의 재고

오성훈 연구위원 차주영 부연구위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도시설계에 대한 이론은 무엇인가? 그러한 이론적 저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로서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자 애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언제나 꼬르뽀레나 제인 제이콥스, 듀아니와 같은 사람들의 그럴 듯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언제나 풀어낼 것인가 아득해지는 연구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이러한 고민이 얼마전 문학비평의 영역에서 논쟁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었다.

문학비평가 하정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문학비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00년대의 한국 문학연구/비평에서는 해당담론을 상대화하는 비판적 작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략) 보편이론은 일본, 미국, 프랑스에 널려 있으니 그것을 유행 따라 수입해 열심히 외우고 정리해서 한국문학에 그럴 듯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이론에 대한 열정, 곧 이론을 스스로 창출하려는 지적 분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하정일, “학문의 식민성과 기원의 은폐”,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제72호, 2009.2, 113-114쪽)”

여기서 제시된 보편이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으나 도시설계분야에서라면 공간과 시간을 일정정도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와 방법론에 대한 담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보편이론’을 제기한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은 많지 않으며, 그러한 보편이론의 가치와 실익에 대해서도 별반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정일 교수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편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의 도시설계 분야에서 서구의 (주로 미국의) 담론이 전반적인 학문적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학문의 식민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 하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이론과 언어로 도시설계에 대한 이론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도시설계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에 관련된 기표들을 잘 살펴보면, 비록 서구에서 비롯된 용어들을 다수 차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는 사뭇 다른 도시설계 과정과 결과물을 만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설계의 담론들은 서구에서 시작된 개념들을 사용하더라도, 상당부분 한국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이론은 이 한국화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론적 개념들이 서구에서 나타난 이론적 흐름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발견해 내는 작업이 현 시점에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도시설계에서 역사와 사회적 맥락, 문화적 자산에 대한 의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많은 서구의 저작들도 지적하고 있는 바이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설계에 있어 지역적인 맥락과 자산이 중요하다면, 서구의 도시설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된 강조점들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리는 만무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도시설계의 이론적 흐름과 기준들이 독자적으로 정리되고,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적인 도시를 설계해온 역사가 유구하고, 그 성과가 장대함에 비해 실질적

으로 그 내용을 일반화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적 논의가 있으나 여기서는 장소를 기반으로 한 특수해가 아닌 도시설계의 가치와 방법론, 절차론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줄거리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론은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도시설계 관련 논의들이 기존의 성과들에 힘입어 더 개선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론적 논의와 저작은 학술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노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에 적용된 서구도시건축이론을 개관하고, 그러한 흐름이 실제로 적용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도시설계가 서구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하는 시작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도시설계 관련 이론은 도시계획이론에서 건축사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도시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한 제안과 기준을 제시하는 문헌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서구의 도시건축이론에서 도시설계에 요구한 개념과 기준의 변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거칠게 살펴보고, 그 흐름이 우리나라의 도시설계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분석의 틀

이 연구는 언제나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보고서나 도면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나 이론들이 대개 서구의 것이라는 의문을 갖는데서 시작하였다. 분명히 도시설계는 자국의 역사와 문화, 공간이용의 전통에 따라 분화되었을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 도시설계 수법들은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외국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적인 도시설계 이론과 수법이 수십 년간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받아들여진 도시설계 이론과 수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설계 분야의 자산 중에서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구 도시건축이론이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에 미친 영향을 물리적인 설계요소에 한

정해서라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추후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도시설계 학문체계를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먼저 도시설계 이론을 만들어진 서구 도시건축이론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도시설계 보고서 및 도면에 적용되어 있는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분야 서구 도시건축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여러 이론가들의 저작을 참고하여 도시설계의 물리적 요소로서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커뮤니티 개념의 고려, 경관에 대한 고려, 그리고 녹지의 배치에 대한 접근방식 등의 다섯 가지 범주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주는 상호배타적인 범주도 아니고, 도시설계의 모든 실무나 이론을 포괄하기 위한 범주도 아니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설계에 관련된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상호

연관과 변천성을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례에 적용하기 쉽도록 재구성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다. 이러한 구분 없이 도시설계 전반의

연원을 기술하는 것은 보다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3.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개관

다섯 가지 범주별로 약 백년간에 걸친 도시설계관련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변곡점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이 거칠게 정리하였다. 첫째, 공간구조 및 가로망 체계에 대한 범주에서는 지테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도시조직, 소규모 블록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공공공간의 중심성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의 오스만과 변협의 시도로 옮겨가면서, 자동차의 수용을 전제로 슈퍼블록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꼬르뷔제, 스타인이 등장한다. 이러한 극적인 공간의 변화는 다시 중심성을 다층적으로 재편하면서 작은 공간에서 가로활동, 생활가로 등에 집중하는 제인 제이콥스나 뉴어버니즘 계열의 움직임에 맞이하게 된다.

둘째,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에서는 상징적 심미적 대로를 추구하는 오스만, 변협, 지테의 연결선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가로를 만드는 수단으로 건축물을 바라보았고, 건축물이 가지는 독자적인 성능과 가로와의 연계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근대주의자들이 녹지의 확보, 보차의 분리 등의 기능적 이유로 가로와 건축물을 이격시키면서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해체는 가로의 사회적 기능마저 해체하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공간에서 배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반하는 실증적 연구를 시작한 제인 제이콥스나 뉴만 같은 이들은 가로와 건축물을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관점은 뉴어버니즘 계열로 연결되지만, 뉴어버니즘 계열에서는 공간의 상징적이고 심미적인 부분도 강

조한다는 점에서 초기 지테의 관점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커뮤니티의 개념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하워드나 전원도시의 계열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후예처럼 아직 공공의 복리를 위한 사회적 개혁의 도구로서 추상적인 커뮤니티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커뮤니티는 이전시대의 농촌사회의 속성을 되살리는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근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커뮤니티 개념을 진지하게 탐구하지 못하였고, 페리나 스타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교류와 같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공간구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행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뉴만이나 애플야드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뉴어버니스트들이나 PPS로 연결되지만 이 시점이 되면 커뮤니티 개념은 일반적인 공간구성의 원리라기보다는 도시재생이나 저소득층의 보호와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적인 활용도가 극대화되게 된다.

넷째, 경관의 처리문제를 보면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서는 전원도시를 위하여 회화적 경관을 구성함으로써, 도시문제에서의 정서적인 창출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근대주의자들의 도시에서는 모더니즘, 큐비즘에 기반을 둔 기하학적 수직적 요소가 강조되는 도시적 경관이 강조되었고,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경관에서는 린치의 이미지나 가독성 개념을 시작으로 인간중심의 소규모, 복잡하고 연속적인 경관,

개인적 경관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관에 대한 인식은 생태경관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지형과 자연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보전, 활용에 대한 접근과 연결된다.

다섯째, 녹지의 배치에 대한 범주에서는 지테나 움스테드, 번햄에게서의 녹지는 하나의 도시문제에 대한 처방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공원도로, 그린벨트, 그린웨이 등을 분화해 나가면서

스타인과 헨리 라이트 등에 의해 녹지체계의 정립과정을 거치게 된다. 녹지체계는 공간조직이나 공간구조의 재편과 맞물려 진화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80년대가 되면 생태적인 개념이 강해지면서 인간위주의 녹지체계를 넘어서서 도시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생태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생태통로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4. 우리나라 도시설계사례의 시대별 검토

이상 다섯 개의 범주로 정리한 내용에 기반을 두어 우리나라 도시설계 보고서 및 도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분석한 대상은 실제 도시나 지구가 아니라, 도시 및 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보고서 및 도면이다. 현실적으로 도시설계를 수행한 결과물에 서구 도시건축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를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대이후 도시설계의 시기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크게 다섯 개로 나누고, 각 시기별로 4개의 프로젝트, 총 20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수집할 수 있었던 관련 보고서 및 도면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에 대한 검토결과, 1960년대에서 2000년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중심성이 완화되어 미국처럼 스프롤된 양상을 보였던 프로젝트는 없었고, 80년대 들어서 지역 내 소규모 중심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블록의 크기는 보차분리를 위한 슈퍼블록이 일관되게 초기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가로의 활동을 고려한 소규모 블록들이 채용되기는 하지만 일부 상업지역 정도에 한정되고 있다. 가로망체계에 대한 고려에서는 생활가로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80년대 들

어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일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가로와 건축물의 분리가 일어났는데, 60년대에는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차량이동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페리처럼 보차분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계획이 계속되다가 70년대 들어서는 보차분리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80년대부터는 건축물과 가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며 전반적으로는 가로와 건축물의 분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서구이론의 장점을 도입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간구조를 지배하는 공동주택담론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커뮤니티의 개념은 서구 도시건축이론에서 제시된 변화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았으며, 행태기반의 커뮤니티계획은 과천 신도시 이후 80년대 계획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자체를 도시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단지 구성이 아파트 일

표 1 주요 이론가들이 주장한 핵심설계요소에 따른 분류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커뮤니티 개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usmann(1852) Hausmann’s renovation of Paris•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usmann(1852) Hausmann’s renovation of Paris• Camillo Sitte(1889)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niel Burnham(1909) The Plan for Chicago• Raymond Unwin(1909) Town Planning in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niel Burnham(1909) The Plan for Chicago• Raymond Unwin(1909) Town Planning in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Clarence Stein & Henry Wright(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nk Lloyd Wright(1932) Broadacre City•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milo Sitte, Sigfried Giedion(1941) Space, Time and Archite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 Corbusier(1942) Athens Cha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car Newman(1972) Defensible space• Le Corbusier(1973) The Athens cha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Oscar Newman(1973) Defensible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nald Appleyard(1982) Liveable streets• William Whyte(1988) City: Rediscovering the cen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Donald Appleyard(1981) Livable Stre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er Calthorpe(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T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lan Jacobs(1995) Great Streets• Peter Calthorpe(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T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er Calthorpe(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Ecology and Community in the Development of the American Dre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on Krier(2009) The Architecture of Community• Andres Duany(2009) Center for Applied Transect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dres Duany, Peter Calthorpe(2000) Charter of the new urbanism	

적용	경관에 대한 고려	녹지의 처리방식	year
Refor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derick Law Olmsted(1858) Central Park •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 Camillo Sitte(1889)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deric Law Olmsted(1858) Win the Central Park Design Competition •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 Camillo Sitte(1889)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ymond Unwin(1909) Town Planning in Pract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niel Burnham(1909) Chicago Plan 	1900
			1910
Neighborhood Unit (1909) Radbu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 Clarence Stein & Henry Wright(1929) Radburn 	1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kway Concept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 Corbusier(1942) Athens Charter 	1940
			1950
Urban C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City • Gordon Cullen(1961) The Concise Townscape • Ian L. Mcharg(1969) Ecological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1960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s Rapoport(1977) Human Aspects of Urban Form 	1970
Stre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idential Commission for American Outdoor(1987) 	1980
Ecology, Community, and the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dres Duany(2009) Center for Applied Transect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 Henry(2006) Ecological Corridor 	2000
URBANISM			

표 2 주요 이론가들이 주장한 핵심설계요소에 따른 분류 재정리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중심성	블록의 크기	가로망의 위계	
중심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usmann(1852) Haußmann's renovation of Paris• Daniel Burnham(1909) The Plan for Chicago	소규모 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milo Sitte, Sigfried Giedion (1941) Space, Time and Architecture		상징적 · 심미적 대로 (가로를 만드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usmann(1852) Haußmann's renovation of Paris• Camillo Sitte(1889) City Planning According to Artistic Principles• Daniel Burnham(1909) The Plan for Chicago
탈중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nk Lloyd Wright(1932) Broadacre City	슈퍼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Clarence Stein•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자동차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가로와 건축물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Raymond Unwin(1909) Town Planning in Practice•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The Athens charter
중심성의 축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Raymond Unwin(1909) Town Planning in Practice•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가로활동을 지원하는 소규모 블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City	교외화에 따른 간선도로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ank Lloyd Wright(1932) Broadacre City	가로의 활성화/ 가로와 건축물의 유기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City• Oscar Newman(1972) Defensible space• Donald Appleyard(1982) Liveable streets• William Whyte(1988) City: Rediscovering the center• Allan Jacobs(1995) Great Streets
		생활가로 확보를 위한 위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er Calthorpe(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TOD• Leon Krier(2009) The Architecture of Community• Andres Duany(2009) Center for Applied Transect Studies	상징성과 심미성 겸비한 가로와 건축물의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er Calthorpe(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TOD• Andres Duany, Peter Calthorpe(2000) Charter of the new urbanism

커뮤니티 개념의 적용		경관에 대한 고려		녹지의 처리방식	시대	
공공의 복리를 추구하는 이상적 커뮤니티 •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회화적 경관 (목가적, 농촌적, 전원적) • Frederick Law Olmsted(1858) Central Park •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 Camillo Sitte(1889)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도시의 처방으로서의 녹지 • Frederic Law Olmsted(1858) Win the Central Park Design Competition • Ebenezer Howard(1898) To-morrow 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 • Camillo Sitte(1889) The Birth of Modern City Planning • Daniel Burnham(1909) Chicago Plan	1900 이전	모 데 르 니 즘 이 전 ↓ 모 데 르 니 즘 이 후
					1900	
					1910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커뮤니티 •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 Clarence Stein & Henry Wright(1929) Radburn •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주거 행태의 실증적 연구 • Le Corbusier (1942) Athens Charter • Oscar Newman (1973) Defensible Space • Donald Appleyard (1981) Livable Streets	근대주의 경관 (수직적, 직선적, 기하학적) • Raymond Unwin(1909) Town Planning in Practice •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Radburn • Le Corbusier(1935) The Radiant City		녹지체계 (공원도로, 그린벨트, 그린웨이) • Clarence Perry(1929) The Neighborhood Unit • Clarence Stein & Henry Wright(1929) Radburn • Parkway Concept • Le Corbusier(1942) - Athens Charter • Jane Jacobs(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 Amos Rapoport(1977) Human Aspects of Urban Form	1920	
					1930	
					1940	
					1950	
		생태적 고려 (자연지형의 고려) • Ian L. Mcharg(1969) Ecological Planning • Andres Duany(2009) Center for Applied Tran- sect Studies	포스트모더니즘경관 (인간중심, Image) • Kevin Lych(1960) The Image of City • Gordon Cullen(1961) The Concise Townscape	생태계 중심의 녹지 • Presidential Commission for American Outdoor(1987) • A. C. Henry(2006) Ecological Corridor	1960	
					1970	
					1980	
					1990	
					2000 이후	
도시 확산 위에 재건하는 저소득 계층의 보호 • Peter Calthorpe(1993) The Next American Metropolis: Ecology, Community, and the American Dream • Place-making						

표3 서구 도시건축이론의 적용사례 분석 요약

구분			1960				1970			
			1962	1962	1968	1969	1974	1976	1977	1978
			마포	울산	성남	여의도	잠실	영동	반월	과천
공간구조 및 가로체계	중심성	공간의중심성 강조				○	○	○	○	
		탈중심성								
		구역 내 중심성					○			
	블록크기	전통적 소규모			○					
		보차분리 슈퍼블록	○			○	○	○	○	○
		가로활동 소규모								
	가로망의 위계	자동차교통 위해 고려	○	○	○	○	○	○	○	○
		교외화 간선도로								
		생활가로 확보								
건축물과 가로의 관계		상징적, 심미적 대로								
		가로와 건축물의 분리	○			○	○	○	○	○
		유기적 결합			○					
		상징성, 심미성 고려 결합								
커뮤니티 개념의 적용		이상주의적 커뮤니티		○		○				
		사회학적 커뮤니티				○	○	○	○	○
		행태중심의 커뮤니티								○
		목적지향적 커뮤니티								
경관에 대한 고려		회화적, 전원적 경관								
		근대주의적 경관				○	○	○	○	○
		포스트모던 경관-개인주의					○	○	○	
		생태경관								
녹지의 처리방식		도시문제의 처방				○				
		녹지체계-위계						○	○	○
		생태계 연결-생태통로								

1980				1990				2000			
1981	1983	1983	1986	1989	1989	1990	1990	2001	2003	2003	2005
고덕	목동	둔산	상계	분당	산본	중동	해운대	동탄	송도	운정	세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도인 것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의 문제는 도시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단지 계획의 문제였고, 나머지 기성시가지는 도시설계가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재편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지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넷째, 경관의 처리는 60년대에는 경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었고,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회화적 경관을 추구한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일부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근대주의적 경관, 도시적 경관을 강조하면서, 80년대부터는 자연경관과의 조화라는 측면을 다루고 있어 포스트모던 경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

고, 90년대 이후에는 조망축 등을 고려한 본격적인 경관계획이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 생태경관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었다.

다섯째, 녹지의 배치 부분에서는 도시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써 녹지를 명시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고, 60년대에는 녹지체계를 위계적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서구 도시설계에서는 시작부터 녹지가 정치적인 대상이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녹지가 대상화되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생태통로 등 생태적인 녹지체계를 도입하는 도시설계는 200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녹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태면적율의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시작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연구의 결론 및 함의

간략하게 정리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설계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발전되어온 것은 확실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안을 보면 도시전체를 다층적인 구조를 가진 생활권으로 분리하여 도시조직을 마련한거나, 커뮤니티의 개념을 유기적으로 재편한거나, 그러면서도 생태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뉴어버니스트들의 개념들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파주 운정 신도시의 경우에도 단독주택지의 설계를 보면 개별 필지와 녹도, 생태축, 경관축을 연결하여 세심한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계안들은 기존의 서구도시건축이론의 변화나 개념만으로 포획할 수 없는 도시설계 분야의 새로운 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이론과 학문체계로 정립하고 개선하고, 전파하는 것은 도시설계 분야의 연

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부족하고 거친 정리와 분석들은 개별 사례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서구의 도시건축이론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토착화된 도시설계의 바탕을 만들고자 진행한 것이다.

향후 개별 도시설계 프로젝트의 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독자적인 가치체계와 성과를 정리하는 이론적 작업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도시설계의 여러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uri**brief.

오성훈 9650, oshud@auri.re.kr

차주영 9646, cytchah@auri.re.kr